



순천은 지금 행복도시 만들기 한창

지난 3월 12일 순천시 풍덕동 주민센터에서 이색적인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되는 제1호 '행복동' 개소식이였다.

순천시는 풍덕동을 '행복동'으로 선정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복 시책 추진에 나섰다. 이곳에는 ▲방문간호사 배치 ▲이동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 ▲우리동네 주치의제 운영 ▲무료법률상담을 위한 우리 동네 변호사 제도 ▲취약계층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맥기이버 ▲우렁각시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원화된 복지와 보건 분야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복지팀의 방문간호사와 희망복지팀의 사례 관리사가 2인 1조로 '행복드림(Dream)'팀을 이룬 것이다.

시 희망복지지원팀의 '행복밥상' 차려드리기 사업과 '뽕송뽕송 크린데이' 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시정 최고 가치는 '시민행복' = 지난해 정 원바람회를 통해 도시 브랜드가 상승된 순천시가 올해 가장 먼저 내세운 가치는 '시민행복'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행복돌봄과를 신설,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있다.

우선 순천시는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를 알아보고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행복지표 개발에 나섰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시민 대다수가 일상에서 좀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 내고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민건강과 행복과 관련된 단체, 동아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순천시민 행복네트워크'를 구성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행복돌봄과 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매주 토요일 동천과 봉화산 둘레길 등을 걸으며 활력을 찾고 있다. 3월부터는 매일 토요일 하루를 정해 '내 삶의 우량주 건강에 투자하는 하루, 행복데이'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즐겁게 걷는 행사를 마련했다.

동천을 비롯해 순천만 정원, '봉화산 둘레길', 남산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즐겨 찾는 생활 운동의 공간들을 활용해 '걷기 운동'의 붐을 일으키고, 도시에 활력도 불어넣는다는 일거양득(一舉兩得)의 효과를 꾀한 것이다.

또한 시는 지난 3월 13개동 주민센터 가운데 풍덕동 주민센터를 '행복동'으로 선정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복 시책을 시범적으로 펼치고 있다.

전국 첫 제1호 '행복동' 개소 행복돌봄과 신설 시책 발굴 지역 복지안전망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 펼쳐

'행복동'의 행복 시책 보기

- 방문간호사 배치
- 이동 일자리상담센터 운영
- 우리동네 주치의제 운영
- 우리 동네 변호사제 무료 법률상담

희망복지지원팀 사업도 호응

- 행복밥상 차려드리기=독거노인 등 100가구에 정기적 반찬 지원
- 뽕송뽕송 크린데이=거동 불편한 장애인 등 세탁·청소 서비스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통합= 그동안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는 복지와 보건 분야의 이원화로 주민의 입장에서 중복 또는 누락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었다. 시는 이를 통합함으로써 초기 상담 조사에서 서비스 제공의 전 과정을 통합, 일괄 관리하고 있다.

방문복지팀의 방문간호사와 희망복지팀의 사례 관리사가 2인1조로 '행복드림(Dream)팀'(5개팀)을 이뤄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과 서비스제공, 사례관리를 통합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행복드림팀에서 사례 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오정순씨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보면 우리가 상담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많았다"며 "하지만 '행복드림팀'이 생겨 간호사와 함께 방문해 볼바드릴 수 있어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시는 '행복드림팀'을 통해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고용·문화 등의 기타 복합적 욕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제공 기관간 정기적인 협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 내세우고 있는 함께 돌봄의 가치에서 '함께'는 중의적이다.

우선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복합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주민을 함께 돌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하나는 법과 제도로 보듬을 수 없는 실질적 빈곤층까지 품을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의미한다.

이런 취지에서 시 희망복지지원팀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과 같은 법적 지원 대상자는 아니지만 갑자기 위기가 닥친 빈곤가정을 위해 지역내 기업, 단체, 교회 등을 찾아다니며 후원자를 개발하고, 물품과 자금을 모아 긴급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 희망복지지원팀은 혼자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부자가정 등 100가구에 정기적으로 반찬을 지원하는 '행복밥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뽕송뽕송 크린데이' 사업은 지역내 세탁업체의 도움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해 세탁이나 청소서비스를 해주는 일이다. 이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사업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음식, 생필품에서 각종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되고 있다.

◇시민건강,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진다=시는 시민들의 행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보건·복지 복합공간과 프로그램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보건소가 떨어져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달리는 행복 24시 사랑방'과 내년 완공예정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러하다.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달리는 행복 24시'는 올해로 출범 7년째를 맞았다. 한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대형버스(2대)를 타고 농촌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미용 봉사과 전기 안전점검, 가전제품 수리 등 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의료와 생활서비스 뿐 아니라 외로운 농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 시골마을 '사랑방'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복24시 팀'은 올해 '마을 건강리더' 양성사업을 시작했다. 관내 오지 마을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과 식품관 운동습관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을 15회 실시해 마을 건강리더로 활동하게 한다는 프로그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후원기관과 단체를 발굴해 읍·면·동별로 연결해 주고,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건강리더 양성교육



제1호 행복동 개소식



순천행복 푸드마켓

낙안읍성 토요장터 다음달 5일 개장식



순천시는 다음달 5일 낙안읍성 장터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토요장터는 낙안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은 물론 시골장터 분위기 연출을 위해 뽕튀기와 엿장수 등을 재현해 낙안읍성의 또 다른 명물로 자리매김 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낙안읍성 동문에서 지역관광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토요장터'를 열었다.

이는 올 초 중국인 관광객 방문시 외국인 전용장터 운영 결과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시범적으로 연 것이다. 순천시가 토요장터 운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장터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90여명이 희망했으며, 이번 시범운영에는 31농가가 참가했다.

낙안면 거주민만 참여할 수 있는 토요장터는 총 3단계에 걸쳐 실시되는 마인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잔류농약 검사 위반 등 관계규정 및 자치규약 위반으로 민원 발생시 '3인 아홉뚝'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차례 시범운영에 보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생산품만 판매한다면 토요장터는 성공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순천=예정열기자 jyj@kwangju.co.kr

'순천만 ECO 걷기대회' 성료

'제4회 순천만 ECO 국제 걷기대회'가 성료됐다. 지난 21~22일 이틀간 순천만정원 동천 갯벌공원에서 열린 걷기대회는 올해 새롭게 태어난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동천~봉화산둘레길을 잇는 코스에서 5km, 10km, 25km 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일본 아오모리시 걷기 교류 관계자와 외국인, 걷기 동아리 회원, 가족 단위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또 가수 스텔라와 투란 등이 참여해 다양한 문화 공연과 완주 축하 한마당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조충훈 시장은 "새롭게 개장한 순천만 정원과 동천, '봉화산 둘레길'로 연계되는 순천의 아름다운 도시 동선을 이번 국제 걷기대회를 통해 널리 알렸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일본 아오모리시와 정기적으로 걷기대회에 상호 참가하는 등 교류를 하고 있다.

/순천=예정열기자 jyj@kwangju.co.kr

최상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No.1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기업! 유대복상사

여러분의 생활속에 함께합니다!

신록의 계절! 싱그러운 시작!!

- ▶ 금속구조물
- ▶ 창호공사
- ▶ 도로표지판
- ▶ 휨스

유대복상사 DEABOK

전남 순천시 저전길 86(인제동)
Tel. (061)744-4225 Fax. (061)741-6269
E-mail. chunji6268@hanmail.net